

나프타, 2005년 소비량 “사상최고”

석유협회, 2005년 하루 75만배럴 ... 중국 및 인디아 수요 폭증으로

2005년 나프타(Naphtha)와 항공유 국내 소비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나프타 국내 소비량은 매년 증가해 2005년 사상 최고치인 하루 74만9000배럴을 기록했다. 중국·인디아 지역의 석유화학제품 수요폭증에 따라 석유화학제품의 원재료인 나프타 수요가 증가한 결과이다.

항공유 소비도 2005년 세계적인 항공수요 증가로 하루 6만9000배럴로 사상 최고수준에 달했다.

이에 비해 휘발유, 등유, 경유, 병커C유 등 주요 석유제품 소비량은 정점을 기록했던 1996-97년 수준을 좀처럼 근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휘발유는 IMF를 맞아 축소됐던 내수가 회복세로 돌아서다가 2003년부터 자동차 연비개선과 유사휘발유 유통 증가 등으로 다시 소비가 줄어들면서 2005년 소비량이 1997년 하루 19만6000배럴보다 3만3000배럴 부족한 하루 16만3000배럴을 기록했다.

경유는 소비량이 1998년 하루 33만배럴까지 떨어진 뒤 증가추세로 바뀌었으나 2005년 하루 39만1000배럴로 1996년 하루 47만2000 배럴 수준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병커C유 소비량도 정부의 LNG(액화천연가스) 소비유도 정책으로 2000년부터 감소세에 접어들어 2005년에는 1996년 수준의 절반을 조금 넘는 하루 26만4000배럴로 떨어졌다.

특히, 대표적 서민연료인 등유는 도시가스과 지역난방 보급확대 및 지속적인 세금 인상으로 2000년부터 소비가 줄어들기 시작해 소비량이 2005년에는 1997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루 10만8000배럴까지 하락했다.

<화학저널 2006/02/01>